조계종 중앙종회, 포교원에 호된 질책

제216회 임시회, 종단 포교 정책 대전환 주문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가 이례적으로 포교원을 향해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수년간 포교정책에 변화가 없고, 포교원 활동이 지역까지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심지어 지역에서 포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포교원이 지역포교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19~20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서 종책질의를 통해 포교원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포교에 대한 대전환 모색을 주문했다. 앞서 총무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종무기관 부서에 특별한 질의를 하지 않았던 종회의원들도 포교원만큼은 쉬이 넘어가지 않았다. 종회의원들의 발언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포교원 활동을 지적하기 위해 벼르고 벼른 듯 수위가 높았다.

"살아 있는 포교 못 느낀다"

가장 먼저 정범 스님은 매년 큰 변화가 없는 포교원 예산을 언급하면서 일선사찰들이 포교원에 대한 기대를 접고, 포교를 위해 자립하도록 포교원의 지역포교 포기 선언을 제안했다. 정범 스님은 "종단에 포교원이 있기에 지역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건다. 포교원이 나서서 포교해주길 바라는 곳도 많다. 하지만 포교원 예산은 늘 별다른 변화가 없고, 전국을 위한 포교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며 "차라리 포교원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선언해야 지역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자립을 준비한다"고 꼬집었다.

지역서 거는 포교원 의존증
포교 자립능력 도리어 해쳐
예산 제한된 포교원 역량에
지역포교 모두 감당 어려워

교육원장엔 진우 스님 선출
신임 원로 자광 스님 추천
종회의원 선거권 자격 강화

이는 포교원이 일상업무만으로도 바쁜 상황에서 일선포교까지 감당하긴 어렵다고 판단, 맡을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해야 산하단체와 지역에서 포교 기틀 마련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지적이다. 즉 '포교원 의존증'을 덜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현 스님은 예산 변화가 없는 것은 포교원이 그만큼 역동적인 계획과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16회 임시회가 9월 19~20일 열렸다. 본회의에서 종회의장 범해 스님이 의안 가결을 선포하는 모습.

정현 스님은 "지난 20년간 포교원이 살아 있게 활동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포교원 자체가 포교해야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구성 같다"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수년간 포교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건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계획을 밝히고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진지하게 업무에 임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만당 스님 역시 "포교원은 지역 포교와 큰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다들 그렇게 느낀다"며 "신도 고령화에 따른 교재 활자 키우는 것도 뒤로 한 채 불교성전 편찬만 매달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함결 스님도 최근 포교연구실의 활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으며, 혜일 스님은 단순히 포교원뿐만이 아니라 종단차원에서 사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와 배려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종회의원들은 포교원이 준비 중인 〈포교법〉 전부개정안에 포교원이 할 수 있는 역할까지만 담아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포교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월 제214회 임시회서 포교분과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포교원장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 종회 분과보다 포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종도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됐다는 지적에 해당 안건은 철회됐으며, 포교원은 추후 포교원장 명의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종회의원들의 비판에 종회의장 범해 스님도 "포교원이 어디까지 포교업무를 맡을 것인지 분명히 해 새롭게 법안을 개정하라는 의견으로 이해해 달라"며 포교원이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청소년재단 설립을 비롯해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 다방면으로 고민하겠다. 포교업무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선거법 · 산중총회법 개정

중앙종회는 제8대 교육원장으로 진우 스님을 선출했으며, 신임 원로의원으로 前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을 추천했다. 이외에도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을 당해 교구 재적승에서 '법계 중덕 이상' 으로 자격을 제한한 선거법 개정안은 논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출석의원 70명 중 47명이 찬성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회의서 의견이 갈렸다. 반대하는 입장은 "앞서 투표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고,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며, 찬성하는 입장은 "품계제도가 정착된 종단서 제도권으로 스님들이 들어오라는 취지"라고 맞섰다. 또한 일각에서는 비구계만 받고 산중을 떠나 있다가 중앙종회의원 선거 때 찾아와 후보들에게 일명 '표 장사'를 하는 스님들이 있다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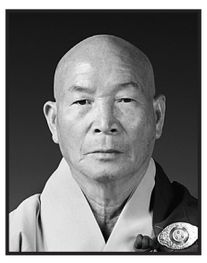
교구본사주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교구본사주지 자격요건 중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 은 부실장급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해 설치된 산하기관의 국장급 이상 종무원 4년 이상 재직 경력이 추가됐다.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 승계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사찰법 개정안과 승려의 징계양형을 세분화한 징계법 제정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해 다루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14회에 총무원장이 발의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관련 종헌개정안과 종법개정안은 총무원이 현재 각 교구별 의견을 취합 중인 관계로 이월을 요청, 오는 11월 정기회서 논의키로 했다.

명예원로 신광당 활안 대종사 원적

18일 천자암서 법랍 67년 · 세수 94세로
분향소 송광사에 마련… 다비 21일 엄수

조계종 명예원로 신광당 활안 대종사 〈사진〉가 9월 18일 오전 9시 10분 주석처인 송광사 천자암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7년, 세수 94세.



1926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난 활안 대종사는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3년 4월 8일 범어사에서 월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58년 3월 10일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상원사, 칠불암, 범어사, 용화사 등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정진하고 백운사 주지를 역임했다. 1999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선출됐다. 2004년 5월 31일에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활안 대종사는 1970년대부터 송광사 구산 스님과의 인연으로 천자암에 주석하며 송광사 수행가풍을 세우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노령에도 새벽 2시에 일어나 도량석과 종송을 하고, 새벽 5시까지 꼿꼿이 서서 염불정진했다. 또한 매년 100일간 방문을 잠그고 수행하는 폐관정진(閉關精進)을 출가 이후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았던 선지식이었다.

활안 대종사의 분향소는 조계총림 송광사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4일간 영결식 없이 문도장으로 치러졌다. 다비식은 9월 21일 오전 9시 송광사 연화대에서 엄수됐다. 〈다비식 차주 상보〉

신성민 기자

李 총리 "불교현안 관계부처와 상의"

조계종 원행 총무원장과 환담
국민적 · 문화적 민원에 공감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구역입장료 등 불교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 협의기구를 구성해달라는 조계종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불교계를 둘러싼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행 스님은 "불교계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하지만 4~5개 정부부처에 업무가 혼재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교계와 정부부처가 함께 논의할 테이블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석한 총무부장 금곡 스님도 "현안들은 불교민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원이기도 하기에 단순히 종교가 아닌 국민적, 문화적 민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와 합장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이에 이 총리는 "말씀하신대로 종교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 문화재는 종교를 넘어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시민들의 통행 문제는 스님들의 생활과도 연결된다"며 "관계부처와 잘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원행 스님과 이 총리는 또한 백제에 불교를 전파한 마라난타 스님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원행 스님은 "파키스탄 대사 초청으로 11월에 파키스탄에 갈 예정이다. 대사께서 영광에 마련된 마라난타사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마라난타 스님의 영향으로 영광군에 법성이라는 지명이 생기고 불갑사가 세워졌다. 스님의 포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법진 스님 직무정지가처분 서울고법 재판부 항소 기각

"직무정지 이유 소명 안 돼"

여직원 성추행으로 징역6월 실형을 선고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왕정옥)는 38명의 선학원 관계자와 분원장들이 제기한 법진 스님의 선학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9월 1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진 스님의 이사직과 이사장직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이유가 고도로 소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법진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앞서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항고심 기각에 법진 스님의 퇴진을 촉구해온 선학원미래포럼 측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추후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섭 기자

불교문화도시 부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대축제
"1천 분의 스님과 10만(십만) 불자가 참여 합니다"

일시 : 2019. 10. 20(일) 오후2시
장소 :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축제의 시간"
송가인, 모모랜드, 더보이즈

| 주 최 |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주 관 | 불교문화대축제조직위원회
| 특별후원 | 범어사, 삼광사, 통도사, 해인사, 쌍계사, 진각종, 태고종, 법연종, 건봉사
| 후 원 | KBS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부산경남방송, BBS부산불교방송, BTN불교TV, 부산일보, 국제신문,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e-붓다, 맑은소리 맑은나라, 부산시설공단
| 협 찬 | (주)동원개발, (주)경동건설, (주)삼정, (주)삼정기업, (주)BNK금융지주 부산은행, (주)고려화공, 은산해운항공(주), (주)국제식품, (주)대원플러스건설, 선보공업(주), 금상건설(주), 나라·동일의료재단, (주)송우산업, 세무법인 덕림, (주)금호, (주)DS종합건설, (주)건양산업, (주)동영골드프라자, (주)세강, 이진종합건설(주), (주)삼미, (주)고려노벨화약, 태금정(주), 누네빛안과,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 (주)와이씨테크

축제 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